

## 자연을 벗삼아 피어나는 푸른 향학열

**연수대상** -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(교장, 교감 포함)

**연수인원** - 총 85명

**연수기간** - 5일(32시간)

○제38기 : 2007. 08. 20.(월) ~ 2007. 08. 24.(목)(5일, 32시간)

○제39기 : 2007. 08. 27.(월) ~ 2007. 08. 31.(목)(5일, 32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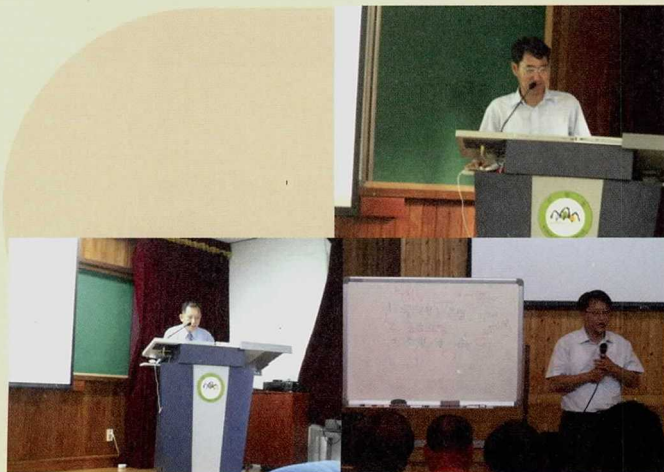
**연수장소** - 산림인력개발원



경기도 진접읍에 위치한 산림인력개발원에서 2007년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교원산림체험과정 직무연수가 있었습니다. 수목 식별, 자생식물 보존관리 등의 산림생태계의 관찰 학습,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 실습, 학교 숲 조성 등의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, 산불훈련 체험, 숲 가꾸기 현장체험, 광릉 숲 체험, 푸른숲선도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한국의 야생화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연수에 참가하신 선생님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푸른숲선도원의 마음에도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우리의 '희망' 이 곧 '숲'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. <서양관/의정부공고 교사>

내 삶을 **숲과 함께 하는 삶**으로 바꾸고 싶어졌다. <정진주/동두천중 교사>  
나무들의 생태와 특징에 대해 조금 더 눈을 뜨게 된 것 같다. <송광용/담양동초 교사>  
숲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숲을 사랑하게 되었다. <김영걸/구리여고 교감>  
자연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. <이용희/삼송초 교사>  
모든 교원들이 이런 유익한 연수를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<최명순/영월공고 교장>  
학생들에게 왜 풀 한포기, 나무 한그루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지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.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. <서성원/서울청계초 교사>  
아는 만큼 보인다고, 숲이 친구가 됐다. <황혜선/의정부공고 교사>  
숲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. <최영미/수택초 교사>  
숲에 관심이 많아 신청하게 되었는데 어느 연수보다 즐거웠다. <김선영/다문초 교사>  
생명의 존엄성과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. <이정애/민락중 교감>  
나무터 변화하여 환경과 **숲의 소중함**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. <지미경/신녕초 교사>  
아이들에게도 자연의 소중함을 생활 속에서 강조해야겠다. <김경자/광주불로초 교사>  
숲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. <강계화/은봉초 교사>  
숲속 나무 밑에 누워 본 하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. <박병덕/광주지산초 교장>  
숲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. <양동용/파주송화초 교사>  
미래의 주역들에게 나무와 숲을 통한 **환경교육의 중요성**을 일깨워 주고 싶다. <신춘식/광주서초 교장>  
학교에 돌아가면 푸른숲선도원들이 월 1회씩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 <김상섭/관양초교사>  
나무곤충만들기 체험, 국립수목원에서의 숲체험 프로그램이 무척 인상적이었다.  
<김진문/울진부곡초 교감>  
연수 내용을 푸른숲선도원들에게 학습자료로 활용해 보고 싶다. <조병익/감포초 교사>  
나무와 숲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. <홍석진/침단중 교사>





## 푸른숲 선도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된 연수였다 (김길란/파천초 교사)

나무와 숲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. <홍석진/침단중 교사>

실제로 나뭇잎을 보면서 **현장체험**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. <문병숙/오동초 교사>

연수기간동안 숲에 대한 무지가 관심으로 변화하였고, 숲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되었다.

<강봉규/동신초 교장>

환경보호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. 그 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무지를 반성하게 되었다. <최용선/동부초 교사>

참나무, 소나무 등의 익숙한 나무들을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준 연수였다. <김예호/외부초 교사>

숲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. <차미호/외부초 교사>

주인의식을 가지고 숲을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. <이순금/은봉초 교사>

나의 **변화된 눈과 마음**을 느낄 수 있었다. <이혜숙/외부초 교사>

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, 숲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. <강우석/송리중 교장>

숲을 통해 우리 인간이 **푸르고 녹음지게, 건강하게** 살아가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.

<조순영/대신초 교사>

숲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. <김종무/풍양초 교장>

연수에서 배운 것을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. <황의술/불로초 교사>

연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<임은나/평양서초 교사>

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숲에 대한 점을 학생들에게 적극 활용하여 교육하고 싶다.

<박노민/평양중마초 교사>

무척 유익한 연수였다.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. <김동현/제주중문상고 교사>

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보람있는 **산림체험 교육**이었다. <권성기/정천초 교장>

나무들의 생존 전략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다. <김정복/의신초 교장>



자연속의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수였다. <김수태/호계중 교장>

무척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았다.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. <정상한/송우초 교사>  
국립수목원의 서어나무 군락지를 가 본 것이 인상적이었다. <윤호상/성북초 교장>  
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숲은 꼭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숲의 중요성을 꼭 지도해야겠다. <이선자/지현초 교장>  
숲에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. <정선교/오산초 교장>  
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. <김창덕/송우초 교장>  
현실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연수였다. <최영식/발곡중 교장>  
연수를 통해 숲이 세상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. <송한수/구리여교 교장>  
숲이 우리 생태, 자연, 인간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원천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.  
<김성/서부초 교장>  
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공부하게 된 점 무척 행복했다. <성귀자/회현초 교장>  
직무와 연관된 지식을 많이 배워갈 수 있어 유익했다. <박정옥/전주공고 교장>  
나무와 숲이 새롭게 보여지고 소중해지는 계기가 되었다. <조현숙/민락중 교장>  
무척 보람된 연수였고, 푸른숲선도원들의 자연 사랑 정신과 협동정신을 기르는 데 일조하고 싶다.  
<박인성/함창고 교장>  
이 같은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들의 교육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. <박종섭/금모래초 교사>  
숲에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 <김영남/월곡초 교장>  
이번 연수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. <곽황래/덕과초 교장>  
숲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숲의 중요함을 더욱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. <허반/아중초 교장>  
건강한 숲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고마운 기회였다. <임홍택/대성여중 교사>  
숲체험활동은 나무사랑이 인간사랑, 동물사랑, 나라사랑까지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무척 유익한 연수였다. <엄근용/파천중 교장>  
교원 산림체험과정 연수과정을 교장, 교감, 지도교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교육한 내용이 푸른숲선도원 지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<박병선/광동중 교감>  
숲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넓어진 것 같다. <최원/대서초 교장>  
학교 숲 가꾸기 및 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가게 되어서 매우 알찬 연수였다고 생각한다.  
<한대현/분당중 교장>





학교에서 직접 활용하고,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과목이 일부 보완된다면 더욱 보람된 연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. <신규화/평촌초교장>

이러한 연수에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푸른숲선도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. <김장희/태서초 교장>

숲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, 숲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. <이재풍/화정초 교사>

학교숲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. 학교 공동체 사고에 의한 구성과 교육적 효과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<원양규/능서초 교장>

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연수였다. <김성희/분당영덕여고 교장>

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. 심화과정연수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좋겠다.

<양희춘/소만초 교장>

숲뿐만 아니라 우리 강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. <리종영/성포고 교장>

숲이 인간생활과 필수관계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. <김유연/수내중 교장>

많은 것을 보고, 듣고, 느꼈다.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. <박천일/대송중 교감>

숲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숲에 가까워지도록 지도할 것이다.

<김용호/광양실고 교장>

숲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. <김근모/영북초 교장>

학생들에게 숲체험활동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효과적으로 숲의 귀중함을 전달시킬 수 있을 것 같다. 무척 유익한 연수였다. <윤오한/남양주공고 교감>

좀 더 일찍 이런 연수를 받았다면 산림교육에 대한 학생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. <정동수/이리초 교장>

학교숲가꾸기 사업이 조경공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전국의 휴양림을 활용하여 교원들을 연수에 참여하게 하고 교원들이 능동적으로 숲체험활동에 앞장서게 해야 한다.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. <김기태/의왕초 교감>

평소 관심에서 멀어졌던 나무와 숲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. 보람된 시간이었다.

<박용수/양지초 교장>

숲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다. <박병찬/송삼초 교장>

연수장소와 환경이 무척 좋았다. 주변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수업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. <이상민/화정초 교사>

